

바이든 취임 즉시 트럼프 정책 뒤집는다

첫날 주요 동맹에 전화...관계 복원 추진 코로나·경제회복·인종평등·기후변화 인수위 즉시 실행할 4대 우선사항 제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초반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동맹 복원 등 외교관계 '정상화'를 공인한 상황에서 인수위원회가 이를 구체화해 내년 1월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복안이다.

8일(현지시간) 바이든 인수위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으로 대응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인수위는 트위터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공 기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인종적 평등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통보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회복도 추진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에 이들 기구에 재가입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아울러 취임 첫날에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폐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림러'(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동맹 복원 작업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전 세계 미군 주둔에 드는 방위비를 고리로 철수 운운하며 동맹 관계를 파탄 냈다는 게 바이든의 시각이다.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비용 부담 요구로 올해 방위비 협상을 아직 타결짓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바이든은 취임 첫날 주요 동맹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맹 회복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7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장소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에게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료 검사를 할 예정이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생산을 늘려 각 지역에 필요한 만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효과적이고 공정한 치료와 백신 제공,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시행을 위한 전국 주지사 및 시장들과의 협력 방안 등도 포함됐다. 고령자 및 고위험군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발(發)을 포함한 대유행 위협을 예측·예방·완화하기 위해 방어막을 확장·재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관장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존재했던 국가안보회의(NSC) 세계보건안보 부서를 복원할 방침이다.

인종적 형평성 이슈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경찰개혁'이라고 CNN이 전했다. 인수위는 의회와 협력해 전국적인 '목조르기' 금지와 경찰에 대한 전쟁용 무기 이전 중지 등으로 무력 사용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국가 경찰감독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인수위가 경제와 코로나19가 서로 어떻게 연결된 것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해결하고자 주·지방 정부에 그들이 필요한 교육자원과 소방관, 기타 필수 근로자들이 해고되지 않게 지원하며, 실직자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실업보험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먼 샌더스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이날 CNN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일요 미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성 요셉 성당에 도착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미 대통령에 선출된 두 번째 가톨릭 신자다. /연합뉴스

트럼프 불복에도 정권인수 쟁결음...기관검토팀 곧 발족

소송전 병행하며 인수업무 진행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한 정권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소송전을 예고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이 분쟁과 별개로 차기 정부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주중 '기관검토팀'을 발족한다고 보도했다. 이 팀은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 현 행정부의 핵심 기관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수 업무를 담당할 참모들로 구성된다. 또 예산과 인력 결정, 계류 중인 규정, 진행 상태인 다른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P는 이 팀은 취임식 후 업무를 시작할 수천 명의 참모와 지명자들이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가는 한편 해당 부서가 바이든

당선인의 우선순위로 꼽으며 전환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과 지침을 제공하는 준비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난 5월 캠프 내에 인수위팀을 꾸려 가겠다고,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수개월 간 인수 계획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정된 인사들과 협력해 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를 공식 출범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를 꾸려 당선 이후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CNN방송은 인수위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의 도움을 얻어 막후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인수위에 최소 150명이 일하고 있고, 취임식 전까지 300명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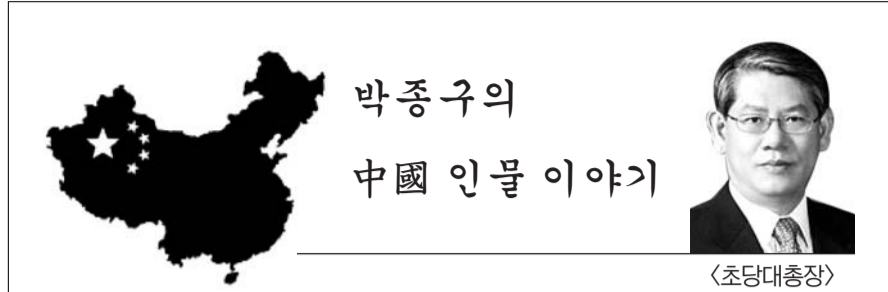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팀 관계자는 CNN에 바이든 행정부를 준비하는 작업은 "오늘도 전속력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백악관 첫 '투잡' 퍼스트레이디 탄생 질 바이든 여사 본업 교직 유지키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69)가 예고한대로 본업인 교직을 유지키로 했다고 대변인이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 헌정사상 최초로 백악관에서 출퇴근하는 '투잡'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질 바이든 여사 측 대변인인 마이클 라로사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교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로사 대변인은 "바이든 박사는 팀을 구축, 교육과 군인 가족, 참전용사, 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선사항들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승리 선언 연설에서 "미국의 교육자들에게 오늘은 위대한 날"이라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6〉 아율초제

아율초제(耶律楚材, 1190~1244)는 금나라 연경 출신으로 자는 진경 호는 잠연거사다. 몽고 제국 체제 구축과 금나라 정벌에 크게 기여했다. 요나라 왕족 출신으로 상서우상을 지낸 아율리의 아들이다. 3세때 부친이 죽어 모친 양씨로부터 학문을 배워 천문, 지리, 율력, 불교, 노장사상까지 폭넓게 공부했다. 금나라말 출사해 좌우사원의랑이 되었다. 1215년 몽고군이 연경을 점령했다. 징기스칸은 그를 발탁했다. 원사(元史)에는 "신장이 8척에 수염과 목소리가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징기스칸이 "금은 요나라의 원수인데 짐이 그대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까?"라고 말했다. 아율초제는 답하기를 "신의 집안은 금나라를 섬

법령·제도 만들어 몽고제국 초석 다진 재상

겼습니다. 어찌 감히 복수하겠습니까." 징기스칸은 크게 감동해 신임하게 되었다. "긴 수염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며 그의 계책을 폭넓게 수용했다.

징기스칸이 보낸 사절단이 호라즘 왕국에서 암살되자 1219년 서역 정벌이 시작되었다. 7년이나 지속된 정벌에 아율초제도 참여했다. 저항하는 나라를 박멸하는 것이 초원의 법도였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바그다드 등지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그때마다 아율초제는 희생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깊은 불심 때문이었다.

징기스칸이 죽자 후계자 분쟁이 격화되었다. 특히 몽고를 지키고 있던 막내 툴루이가 최대 장애물이었다. 초제는 툴루이에게 대간 자리를 양보하도록 설득했다. 오고타이 형 차가타이 역시 "당신이야말로 사직을 지키는 공신이다"라며 동생의 즉위를 받아들였다.

1229년 3남인 오고타이가 2대 황제로 즉위했다. 일찍이 징기스칸은 아율에게 "아율초제는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려준 보물이다. 모든 국정을 맡겨라"라고 지시했다. 초제를 재상에 기용했다. 몽고에 투항한 시모한토포 집단이 하북의 양민을 죽이고 농지와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아율초제는 폭도를 체포해 16명을 공개 처형해 질서를 확립했다. 시모한토포는 이후에도 음해공작을 벌였지만 오

1244년 5월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그가 나라 재정의 절반을 착복했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조사 결과 거문고 등 악기 10여개, 몇몇 고서화, 서적 수십권이 전부였다고 한다.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사후 태사, 상주국, 광연왕으로 추봉되었다. 신원사(新元史)에는 "중원의 백성이 오랑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그의 덕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율초제는 겸손과 절제로 몽고 제국의 초석을 닦은 위대한 정치인이었다.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